

## ■ 지평 소식 ■

## 손계준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손계준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은 2015년 2월 손계준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손계준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서 1998년 제41회 행정고시(국제통상직) 합격 후 환경부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무관, 서기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하도급총괄과에 3차례 근무하면서, 주로 하도급 관련 법령 제·개정 업무를 맡아 하도급계약 성립 추정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였고, 상습법 위반업체 선정기준과 벌점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IT 분야 등의 직권조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송무담당관실에서는 위원회 내부 법률자문을 수행하면서 60여 건의 주요 소송을 담당하여, 담합 사건(설탕, 제분, 주방세제, 외국환수수료, 화물항공 국제카르텔, LPG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인텔, 퀄컴, 온라인쇼핑몰, DRM 등), 불공정거래행위 사건(백화점, 제약회사, 병원 등), 기업결합 사건, 하도급법 위반 사건,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등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특히 퀄컴 사건의 심결 TF에 약 6개월 동안 참여하여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융분야 약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약관심사과에 발령받아 근무 하였습니다.

카르텔총괄과에서는 총괄서기관으로서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을 담당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감면고시를 개정하였고, 담합 직권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 금융정책과에 파견되어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하였고,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의 정책조정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면서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사건처리절차 개선 TF에 참여하였습니다. 특수거래과에서는 규제개선 및 방문판매법령 개정을 담당하였으며,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분야의 직권조사를 수행 하였습니다.

손계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여 공정거래법의 경제이론적 영역(경제분석 분야 등)에 정통하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치는 등 공정거래 분야 전반에 관한 다양한 실무 경험과 법학 이론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입니다.